

教養教育으로서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金 善 亨

(仁川大 教授)

I. 反共教育·精神教育의 考察

일반적으로 市民教育, 道德教育, 社會教育, 그리고 政治教育 등으로 表現되고 있는 國民精神教育은 어느 時代나 社會 혹은 國家를 막론하고 이를 輕視하거나, 度外視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를테면, 어떠한 政府나 體制이거나 혹은 民主主義 또는 全體主義國家를 막론하고, 그 國家의 維持·發展을 위한 構成員에 대한 精神教育은 있어 왔고, 또 그와 같은 教育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廣義의 國民精神教育은 어떤 特定の 時代나 國家의 特殊한 現象으로서의 特殊教育이 아니라, 어느 時代나 場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現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政治教育(Political education) 또는 政治的 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로 일컬어지고 있는 國民精神教育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例外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말한 國民精神教育이란 요컨대 해당 國家나 社會를 위해서 바람직한 人間을 기르는 人間教育으로서 이에 따른 人生觀과 國家觀 그리고 價値觀을 갖게 하는 것을 目標로 삼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解放 후 民主主義의 理念에 기초를 두었던 우

리나라의 教育은 民主市民의 양성이 그 目標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6.25동란의 民族的인 비극을 경험하면서 反共教育·勝共教育 또는 統一·安保教育을 내세우기도 했었고, 그후 특히 60年代에 들어서 社會的인 혼란이 거듭되고 國家安保가 위협을 받게 됨으로써 國民倫理教育이 提起되었으며, 越南事態 이후로 對內外的인 충격과 함께 國民精神教育의 必要性은 強調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의 民主主義教育은 보편적인 民主主義의 觀念과 理解만을 가르치는데 치중하여 民主主義가 具體的인 狀況에서 어떻게 자라나야하며 對內外的인 特殊한 그 國家나름의 環境과 與件속에서 어떻게 土着化되어야 하는가 하는 現實問題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았다. 民主市民教育 역시 個人의 人間性과 素質을 개발하고 人權意識을 길러주는데만 치중한 나머지 社會的인 秩序나 責任내지는 준법정신의 함양이라는 市民意識의 提高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反共教育에 있어서도 一方的인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反對와 그 集團의 힘에 限定되어 있었던 것 같은 감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背景과 경험을 감안하여 現實적으로 北韓의 각종 挑發과 浸透를 源泉的으로 봉쇄할 수 있는 思想무장을 시킴과 동시에 國民의 倫

理意識을 높이는 한편 투철한 國家觀을 갖게 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써 國民精神教育의 必要性이提起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우리의 國家와 社會의 存續과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愛國心이 투철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教育이 다름아닌 이 國民精神教育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간에 실시하여 온 우리의 國民精神教育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非效果的이거나 혹은 자체의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즉, 政府가 그간에 이 教育의 必要性을 거듭 강조해 오면서도 뚜렷한 目標意識이나 그 方法 및 支援面에 있어서 비교적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짙고, 國民의인 呼應도 미흡한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에 있어서도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의 國民倫理教育이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價値觀과 世界觀을 그 社會의 構成員에게 習得시키고 倫理的 規範들을 內面化시키고 生活을 통하여 薰鍊시키는 것을 目標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그 重點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國民精神教育은 人間教育과 知識體系 및 思想을 위한 教育 그리고 國家 社會안에서의 秩序있는 生活을 위한 薰鍊이 그것이다.

첫째로 國民精神教育은 어떠한 國家나 社會에 있어서의 教育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人間을 기르느냐 하는데 重點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國民精神教育이 한낱 理論的인 知識에만 依存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人間の 基本的인 性格(basic character)을 度外視할 우려가 있겠기 때문에 國家 혹은 民族이라는 상징적인 同一體에 대한 公同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뚜렷한 國家觀과 愛國心을 함양하여 國家와 民族의 번영과 發展에 기여하면서 自由와 權利에 따른 責任과 義務를 다할 수 있는 薰鍊된 民主市民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注力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앞으로 國民精神教育은 國家, 社會의 特殊한 狀況과 現實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知識體系 및 思想의 教育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과거 우리는 民主主義에 대한 知識과 共產主義에 대한 批判的 知識, 그리고 우리의 歷史와 文化에 대한 教育을 思想教育의 전부로 취급해 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냉혹한 國際社會에서 갈등과 對立, 그리고 國家利益의 相衝에서 비롯된 온갖 紛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北韓의 軍事的 위협이라는 特殊한 安保環境에 1次的으로 對應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生存學으로서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통한 理念的·思想的인 武裝이 必要한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간에 행하여졌던 共產主義에 대한 一方的인 혐오감의 注入은 이제 限界에 도달했다고 볼 때 보다 體系적이고 綜合的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실시가 가장 으뜸가는 思想教育의 目標가 되어야 할 것으로 確信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國民精神教育은 國家와 社會안에서의 自由에 수반된 尊嚴정신과 權利에 따른 의무와 責任感의 함양을 위한 生活訓練이 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社會生活에서 항상 理性的으로 解消·克服하고, 民主市民으로서의 共同生活에 따른 질서를 가질 수 있는 薰鍊과 協同精神이 길러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教育理念이나 政策이 樹立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國民들의 資質과 그에 따른 生活訓練이 이를 밑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國民精神教育은 實效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80年代에 있어서의 보다 尖銳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南北對決은 政治·經濟·軍事的 側面에 못지않게 양측 國民의 精神力과 道德力, 그리고 理念上에 있어서의 主體對決로 귀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國民精神教育의 實效性은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共產主義는 싫다」는 式의 60年代類의 反共教育으로써는 이미 實效性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80年代에 있어서의 南北間의 思想대지는 精神力의 對決이 南北對決의 核心을 이루게 될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의 우리 韓國人은 事大主義의 依他性和 倣倣적 敗北主義에 사로잡힌 나머지 每事에 諦念的이고 否定的·陰性的인 屬性이 曠배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겠다. 그러나 특히 80年代에 있어서의 우리들은 우리 民族의 傳統과 文化를 되살려 積極的이고 進取的인 韓國人像을 定立하고, 그에 따른 倫理意識을 기쁨과 동시에 共產主義의 虛構性에 對應할 수 있도록 思想的으로도 武裝함으로써 每事에 肯定的·協助的·建設的으로 活動하고, 科學的이고 合理的으로 思考하는데 必要한 教育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이 다름 아닌 80年代에 있어서의 國民精神教育이 말아야 할 課題이면서 그 方向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에 있어서의 教養教育으로서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이와 같은 國民精神教育의 하나의 分野로서의 性格과 그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고 싶다.

II.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必要性

반만년의 歷史속에서 單一民族으로서의 傳統과 文化를 갖고 있는 우리 民族은 특히 統一新羅 이후로 13세기 이상을 統一·單一國家로서의 正統性을 지켜왔다. 그러나 우리 韓半島는 강대국간의 戰略的 要衝에 자리잡고 있다는 地政學的 特殊性 등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大陸勢力과 海洋勢力 사이의 角逐場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우리 民族은 解放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美蘇兩國의 戰略과 그 필요성에 의하여 南北으로 갈리고, 우리의 의사나 선택에 관계없이 西歐의 民主主義와 教條的 共產主義가 南과 北에서 각기 支配的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에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 자체도 위험시하고 금기구역에 가두어둔 채, 南北 실정의 비판에만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이러한 종래의 教育方針은 국민들에게 성숙한 이데올로기 批判의 안목을 길러 주는 데 성공했을 때만 그 教育的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방향은 民主主義의 問題點에 대한 분석은 물론 최근의 社會科學의 경향과 이데올로기의 對決, 現代의 精神史的인 상황, 現代哲學의 새로운 이론, 共產主義와 네오마르크스主義의 對決, 第3世界에서의 支配原理와 갈등, 그리고 北韓의 統治原理와 그에 따른 戰略·戰術을 규명하고 그것을 비판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오늘날과 같이 高度로 産業化한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의 曠목적인 絕對化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서 階級과 性, 그리고 地域을 초월한 우리 6천만 民族의 최대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良心과 眞理와 人格이 빛을 보는 正義社會를 지향할 수 있는 民族的인 이데올로기를 개발, 그것을 다시 統一民族哲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이야말로 이 땅을 支配하여 온 分斷의 悲劇을 극복하고, 統一의 의지를 실현시킴으로써 이데올로기와 制度의 장벽을 넘어선 主體的인 民族史觀의 확립을 통한 統一祖國을 건설하는 捷徑이 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國民, 특히 우리 知識人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絕對性과의 철저한 對決이야말로 회피할 수 없는 가장 으뜸가는 民族的인 과제가 아닐 수 없겠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에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侵略戰爭의 참혹했던 기억만을 되살리면서 지극히 회피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였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겠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젊은 戰後世代들에게 共產主義의 잔혹상과 이에 따른 혐오감의 일방적인 注入만 으로서는 올바른 民族史觀의 定立을 통한 民主國家建設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70년대에 들어서서 대학가 일각에서 급진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 이에 빠져든 젊은이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흐름이 社會混亂의 하나의 요인으로까지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반드시 政治性을 지니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政治는

거의 예외없이 이 이데올로기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원래 이데올로기는 政治的 支配의 目的과 理想을 제시해 주는 방향타로서, 혹은 자신의 政治的 야심과 黨派를 正統化시키는 政治哲學 또는 神話로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肯定的인 機能으로서의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첫째로 政治的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社會的인 集團을 構造의으로 統습시키고, 둘째로 그 集團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의 目標을 향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게 하며, 셋째로 여기서의 社會的인 集團의 正體를 드러내준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역사적인 相對性을 무시한 채 그것이 絕對化되고 다시 硬化되면, 그것은 곧 逆機能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絕對化되고 硬化된 이데올로기는 劃一的인 統一을 요구하고, 강요된 目標을 위한 團結을 요구하며, 閉鎖的인 硬塞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테면, 個性의 신장에 의한 有機的 統습이 아닌 劃一化와 공동책임에 의한 단결이 아닌 強強化, 그리고 開放的인 相互作用에 의한 協調가 아닌 閉鎖性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硬化되고 革命的인 이데올로기의 독소에 대하여, 우리 젊은 知性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성숙한 이데올로기의 批判의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 批判哲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물론 그간에 우리나라가 反共教育 등 이 문제에 관심을 두어왔지만, 이제는 共產主義의 잔혹상의 폭로와 이에 따른 혐오감의 일방적인 注入式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方向

우리나라의 경우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필요한 理由와 앞으로의 教育方向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다.

첫째로는 오랜 기간 동안 反共教育을 實施해 왔으나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檢討해야 할 전

환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反共教育의 문제점이란 바로 방법적인 反省을 말한다. 國民學校에서 大學에 이르기까지의 反共教育은 천편일률적인 方法的 적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피교육자의 知的發達의 段階를 고려치 못했기 때문에 肯定的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反共教育이 주로 政治的인 利益에 매여있는 것으로 認識되고 支配權力의 正當性을 확보해 주는 변호의 論理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이러한 執權의 변호논리를 벗어나서 참다운 社會發展을 위한 事實論理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에 根據하게 된다.

셋째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기존하는 政治文化의 定着을 前提로 하고 있다. 기존하는 政治體制의 理念이 個別的인 國民의 生活形態로 異議없이 받아들여지고 또 기존하는 政治理念이 여타의 이데올로기를 批判하는 基準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政治生活의 形態로 自由民主主義를 선택했다면 이의 實現과 함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實施되어야 한다. 인식하는 주체밖의 대상을 測定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기준이 必要하다. 이데올로기를 批判하는 일은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적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방적이었던 反共教育에 비해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自由民主主義 體制에 대한 生活訓練을 必須的인 要件으로 하고 있다.

네째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요청되는 理由로서는 現代産業社會가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토대로하여 成長해 갈 경우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克服하는데 弱點이 되고 있다. 게다가 政治的不安定 때문에 後進社會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社會부조리, 부정축재, 非合法的 執權行爲, 너물수수, 勞働者와 貧者의 비참한 生活等은 共產主義를 대안으로 삼게하는 유혹이 된다.

靑少年에게 이러한 現象이 심각한 생각으로 부각되고 社會변혁에 대한 意志를 굳히게 된다. 이들 청소년들의 순진한 휴머니즘이 虛僞意識으로 가득찬 共產主義者들의 책략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